



워킹페이퍼 2025-01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임완섭



연구진

연구책임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워킹페이퍼 2025-01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발행일 2025년 9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발간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와 관련한 인식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양육자의 행복도 증가,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의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등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 및 돌봄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점차 커지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양육은 양육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위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특성 파악 등을 통하여 해당 가구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 등에 대해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한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반려동물 양육자 및 양육 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양육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반려동물 및 관련 복지에 대한 개념적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특성을 살펴본 후에,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 제고와 같은 효과를 회귀분석과 같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상 또는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관련 세금과 같은 주요 현안들도 고찰하였다.

위 연구는 본 연구원의 자기주도 과제로 수행되었다. 자기주도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주도하는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 연구의 다양성과 연구 성과의 질을 제고하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복지 또는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다소 생소한 영역의 정책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연구자의 개별 연구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25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요 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개념적 검토 및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	11
제1절 동물복지 관련 개념적 검토	13
제2절 반려동물 관련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	19
제3장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효과 검토	27
제1절 관련 조사 현황 및 주요 결과	29
제2절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특성	34
제3절 반려동물 양육 효과 분석: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44
제4장 주요 결과 및 함의와 관련 현안 검토	53
제1절 주요 결과 및 정책 함의	55
제2절 현안 및 연구 방향성 검토	58
참고문헌	67
Abstract	73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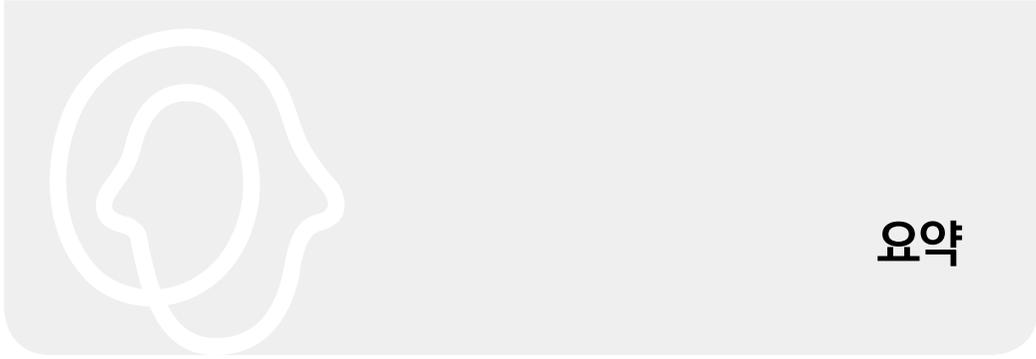
〈표 1-1〉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10
〈표 2-1〉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의 5대 자유	16
〈표 2-2〉 동물 관련 외부효과 해결방법	25
〈표 3-1〉 가구주의 성, 연령별 반려동물 가구 (2020년 기준)	31
〈표 3-2〉 가구주의 혼인상태, 세대구성별 반려동물 가구 (2020년 기준)	32
〈표 3-3〉 현재 반려동물 양육 여부	34
〈표 3-4〉 반려동물 양육 관련 비용: 월평균 지출 비용	35
〈표 3-5〉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집단 분포	36
〈표 3-6〉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집단 분포	36
〈표 3-7〉 가구원수별 반려동물 관련 비용 지출 여부	37
〈표 3-8〉 반려동물 관련 비용 지출 여부에 따른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37
〈표 3-9〉 현재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 여부	38
〈표 3-10〉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30% 적용	39
〈표 3-11〉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40% 적용	39
〈표 3-12〉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50% 적용	39
〈표 3-13〉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60% 적용	40
〈표 3-14〉 가구원수별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중: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40% 적용	40
〈표 3-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41
〈표 3-16〉 부문별 행복도 측정: 개인, 전체	41
〈표 3-17〉 부문별 행복도 측정: 개인, 빈곤여부(기준중위소득 30% 적용)	42
〈표 3-18〉 부문별 행복도 측정: 개인, 빈곤여부(기준중위소득 40% 적용)	42
〈표 3-19〉 부문별 행복도 측정: 개인, 빈곤여부(기준중위소득 50% 적용)	43
〈표 3-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따른 부문별 행복도 측정	43
〈표 3-21〉 관련 선행연구 현황 및 정리	44
〈표 3-22〉 활용 변수와 내용	46
〈표 3-23〉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반려동물 유무	48
〈표 3-24〉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반려동물 양육자 대상 반려동물 지출비	50
〈표 3-25〉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1인 반려동물 양육가구	52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반려견 규모 및 반려견 관련 공공시설 규모의 결정	25
[그림 3-1] 조사별 반려동물 양육가구 규모: 2020년 기준	33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양육 가구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이 양육자의 삶의 질 및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이 고령화가 될수록 의료비용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 관련 비용의 증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 여부 또는 확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특성을 관련 지출 특성을 통해, 양육자의 특성을 행복, 걱정, 우울 등 행복도와 관련한 변수들을 통해 파악하고, 인과관계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및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개입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현안 검토와 이에 대한 정책 및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개념적 검토 부문,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효과에 대한 검토 부문 그리고 주요 결과 및 관련 현안에 대한 검토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념적 검토 부문에서는 반려동물 및 관련 복지에 대한 개념적 검토와 사회보장과 동물복지의 연계성 등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사회보장 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보장적 개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자 및 양육가구의 특성 분석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특성별 양육 실태와 개인의 행복도와 관련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과관계 분석은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반려동물 양육 유무와 반려동물 지출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활용할 경우, 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발생으로, 추정된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유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에,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

2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결과 및 관련 현안 검토 부문에서는 주요 결과에 대한 합의와 반려동물 보유세, 취약계층 지원, 의료 접근성 등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며, 향후 연구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제시되어 있듯이 반려동물 양육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려동물 양육이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일부 집단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를 촉진하는 지원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경우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반려동물 대상 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OLS)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인과관계 접근(실험적 또는 준실험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해당 결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준실험적 방법은 물론 사회적 실험(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용이 표준화되고, 해당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관련 조사 통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정책 수단의 도입 및 확대에 필수적인 부문이다. 대표성 있는 표본 확보와 구성 그리고 반려동물의 종류와 연령(최소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는 조사 필요)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조사 자료의 생성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반려동물, 동물복지, 사회보장, 삶의 만족도, 보유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물보호 등 동물복지와 관련한 인식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반려동물이 양육 가구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가구 기준으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2010년 17.4%, 2015년 21.8%, 2020년 27.7%, 2023년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민국, 김동훈, 2024, p.4).¹⁾ 이렇게 반려동물의 양육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제고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 및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구 특징을 가진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보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김석은, 2020, p.660). 하지만 가구원 수가 적거나 고령인 경우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물보호 등 동물복지와 관련한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한 인지가 제고되고 있으며²⁾, 동물보호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수용성이 높아진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양육비용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치료비를 제외한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2021년 14만 원에서 2025년 19.4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황원경, 김남경, 강윤정, 2025, p.53), 치료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

1) 하지만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양육 비율은 약 15%인 것으로 나타남. 관련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3장의 제1절에서 검토하였음
2)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2025.1.22, p.1)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인지도는 '20년 57.1%에서 '22년 66.5%, '24년 75.4%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3)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는 황원경 외(2025, p.54)를 참고하기 바람

로 예상된다.

동물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 측면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양육자 또는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정책 지속 및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즉, 반려동물 양육자 또는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이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거나, 반려동물 양육이 양육자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사회보장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과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형태와 특성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양육이 양육자 또는 양육가구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효과는 행복도, 삶의 질 측면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다른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특성 및 효과를 파악하기 앞서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양육과 관련된 영역은 동물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와 복지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복지 또는 사회보장 영역과 중첩되는 영역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회보장 차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회보장 차원의 동물복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물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련성과 차이 그리고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동물복지의 범위 등을 개념적 검토 수행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반려동물 복지가 ‘사람을 위한 복지인가?’, ‘동물을 위한 복지인가?’, 아니면 ‘통합적 차원의 복지인가?’, ‘동물에게 권리적 차원의 복지가 존재하는가?’ 등 다양한 질문 중 사회보장과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검토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후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외부불경

제 및 반려동물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도 이러한 현안 중 하나이다.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 양육자의 행복도 등이 높아져 삶의 질을 제고되는 사회적 편익과 함께 반려동물의 보유 및 양육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물림사고, 배설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보장적 개입이 필요하고 외부불경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대응 또는 대응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보유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유세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반려동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부분과, 앞서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 차원에서 독립변수로 살펴볼 반려동물 양육여부와 반려동물 지출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개입에 대해 검토해 보고 그 함의와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고의 목적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특성 파악 및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 지출의 영향 파악을 통해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개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양육자 및 양육 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해당 가구와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사회보장과 동물복지의 관련성에 대한 개념적 검토, 2)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소득수준별 지출 특성 파악 및 반려동물 양육의 삶의 질 개선 효과 검토(삶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중심으로 파악), 3)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사회보장 차원의 현안으로서 반려동물 보유세,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지원의 방향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 결과들은, 향후 관련 정책 판단 및 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개념적 검토와 정립을 통해 동물복지와 사회보장간의 관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관련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여부 검토 및 관련 정책 방향성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및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의 판단자료로서의 역할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개념적 검토 부문과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효과 부문 그리고 관련 현안 검토 및 향후 연구 방향성 검토 부분으로 구성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념적 검토 부문의 경우 동물복지와 사회보장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반려동물 양육 차원에서 사회보장 차원의 접근 필요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검토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및 관련 지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의 논리적 토대로 활용된다. 본 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사회보장과 동물복지의 관련성에 대한 개념적 검토의 내용은, 동물복지의 개념 및 동물보호와의 관계,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및 범위, 사회보장의 개념과 동물복지와의 관계성, 사회보장 차원의 동물복지의 범위 및 관련 유형화에 대한 부문이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 필요성 검토는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 사회적 편익과 비용 등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검토를 포함한다. 이러한 검토는 선행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반려동물 양육의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 관련 검토 사항〉

- 국민 삶의 질을 향상 : 반려동물 보유 및 지출 지원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책무보험 가입, 의료비 지출 경감
- 외부불경제 및 외부경제 : 외부불경제로 인한 반려동물의 과대공급과 외부경제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과소공급(보유세 검토 등)

반려동물 양육자 및 양육가구의 특성 및 지원 방향성 검토는 크게 반려동물 양육가구 특성 분석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 등 효과성 검토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가구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소득수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수혜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및

반려동물 양육 관련 비용 분석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관련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의 삶의 질 개선 등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하는 가구 또는 사회의 비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들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성과 소득 및 지출 특성을 고려한 정부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대응 방안과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의 현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보유세 등 반려동물 보유 및 양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축소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와 연구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성이 포함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부개입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부의 개입은 대부분 산업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또는 동물의 보호 측면에서 이뤄졌지만, 본 연구는 정부의 개입을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육자(또는 양육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과 동물복지의 관련성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적 검토를 바탕으로 동물복지와 사회보장의 연계성과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 측면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은 개념적 검토와 함께 사회보장적 접근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지출 특성 및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를 삶의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들을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보장 현안에 대한 방향성 및 정책 함의를 제시하였다.

개념적 검토 부분의 경우 주로 문헌 고찰을 통한 논리적·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즉,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사회보장과 동물복지와의 정의과 개념, 관련성과 유형화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동물복지, 특히 반려동물 복지 관련 선행연구를 정책함의 도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적 개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문은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정량적 분

석에 있어 기술분석과 함께 인과관계를 밝히는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정량적 분석의 자료로는 반려동물 복지 현안과 관련한 집계자료를 활용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⁴⁾,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반려동물 현황 자료 등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실태 그리고 관련 인식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 및 양육가구의 특성, 반려동물 관련 지출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기존 조사자료의 한계(소득의 구간별 조사 등)를 극복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 등 반려동물 관련 변수들이 비교적 상세히 제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과관계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지출과 관련된 변수가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반려동물 관련 정부개입 가능성을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표 1-1〉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접근방법	목적	주요 내용	연구방법
개념적 이론적 고찰	관련 개념 정립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보장적 접근의 당위성 도출	- 동물복지의 개념적 검토 - 동물복지와 사회보장의 관련성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보장적 접근의 당위성	- 선행연구 검토 - 관련 법률 검토
정량적 접근	반려동물 양육 관련 실태 파악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량적 근거 마련	-반려동물 보유 및 양육 관련 실태 및 현황 -반려동물 양육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파악	- 기술분석 - 회귀분석
현안 검토	주요 현안에 대한 향유 연구 방향성 제시	-반려동물 보유세, 의료비, 정부 지원에 대한 방향성 및 연구 방향	- 선행연구 및 분석결과 검토

자료: 저자 작성

4)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2023년부터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되어 수행되었음(농림축산식품부, 2023, p. 6)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개념적 검토 및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

제1절 동물복지 관련 개념적 검토

제2절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

제 2 장

개념적 검토 및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

제1절 동물복지 관련 개념적 검토

1. 개요 및 주요 정의

사회보장과 동물복지의 관련성에 대해 동물복지의 개념 및 동물보호와의 관계, 반려동물 복지의 개념 및 범위, 사회보장의 개념과 동물복지와의 관계성, 사회보장 차원의 동물복지의 범위 및 관련 유형화를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수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물이 포괄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 그 대상을 범주화시키지 않고 ‘복지’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측면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물복지라는 용어 역시 매우 다양한 경우에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해당 용어가 쓰이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해당 용어가 동물에 대한 복지를 의미하는지 동물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한 복지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둘 다를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물복지의 범위는 동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 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동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2024)상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된다.⁵⁾ 생물

5) 동물보호법(법률 제20581호) 제2조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

학적으로는 생물의 두 갈래 중 하나로서,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며, 소화나 배설 및 호흡기관이 분화⁶⁾되어 있는 생물군을 지칭한다. 반려동물은 이러한 동물을 목적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이를 정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2024) 제2조제7호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반려동물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5, 제3조). 법률적 정의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의들을 좀 더 살펴보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⁷⁾,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⁸⁾이자,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 즉 인간이 동물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여 동물을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 상대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한편, 반려동물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가축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가축은 야생동물을 길들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는 동물을 지칭한다.¹⁰⁾ 이러한 ‘가축’이라는 용어는 반려동물을 포괄하기도 하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2023)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중략)....,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2023, 법률 제19706호)

하지만 가축과 반려동물은 용도 및 목적, 사람과의 관계,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관련 사회보장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4185&cid=40942&categoryId=32310>에서 '25.4.22 인출

7) 네이버 국어사전, 우리말샘.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b63773de3d64152bf371f1a296cbd38>에서 '22 .3.15 인출

8)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반려동물의 의미.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210524110205412에서 '22.3.15 인출

9)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반려동물 알기.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에서 '22.3.15 인출

10) 농촌진흥청. <https://www.rda.go.kr/children/pageUrl.do?menu=anim&pg=0101>에서 '25.4.22 인출

이와 관련하여, 함태성(2019)은 동물을 대우 방식, 인간의 소유 대상 여부 등을 통해 분류하고 있다. 먼저, 인간이 소유할 수 없거나 소유가 금지된 동물의 경우, 이러한 동물에 대한 복지는 관련 법률(야생생물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생태계를 보존하고 거기에 속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 대상 여부에 따라, 동물은 야생동물과 비야생동물로 분류할 수 있다(함태성, 2019, pp. 340-341). 한편, 동물에 대한 대우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이용 목적과 동물과의 관계 설정 방식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이에 따라 동물을 실험·농장·전시·노동·야생 동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함태성, 2019, p. 335), 이러한 분류는 동물에 대한 이용 목적과 관계 설정 방식을 모두 고려한 것이지만, 여기서 실험·농장·전시·노동 동물은 주로 이용 목적 측면에서, 반려·야생 동물은 주로 관계 설정 측면에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방식이 명확하게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동물의 분류 기준에 따라 중복되는 대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물원의 야생 동물들의 경우 말 그대로 야생동물의 특성과 함께 동물원에서 사람이 관람이 가능한 전시 동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과 전시동물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다(Guo Bin, 2023, p. 12-13). 이는 반려동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반려동물은 이용 목적 중심의 실험·농장·전시·노동 동물, 생태계 보존과 보호가 중요한 야생동물과 달리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가족처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함태성, 2019, p. 335)로 정의한 것처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한 것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 여부의 그 방향성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 가장 관계성 높은 정의로 볼 수 있다.

나.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적 검토

동물복지(animal welfare)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세계동물보건기구(구: OIE, 현:WOAH)는 동물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동물복지란 동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동물은 건강하고, 편안하고, 영양 상태가 양호하며, 안전

하고, 본능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불쾌한 상태를 겪지 않을 때 좋은 복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미국 수의사 협회는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 제공, 관리, 먹이 등 영양 공급,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지와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인간의 의무로 정의하고 있다(박진연, 2019, p. 79).

동물복지의 보장은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에서 제시한 동물의 5대 자유 즉, ‘배고픔 및 갈증’·‘불편함’·‘고통, 상처, 질병’·‘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와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보장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도 이러한 내용¹²⁾이 반영되어 있다(나인지, 2014, pp. 1-2; 김면수·김용석·김진갑 외. 2018, p.12.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

〈표 2-1〉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의 5대 자유

항목	내용
배고픔 및 갈증	적절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있게 신선한 물과 먹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충분한 영양 유지
불편함	적절한 환경유지(피난처와 안락한 휴식 장소 포함)
고통, 상처, 질병	질병 예방 및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어울림 유지 등
공포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환경 휴지

자료: 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1993); 나인지(2014, p.2); 김면수, 김용석, 김진갑 외. (2018, p.12) 재인용

동물복지와 함께 사회보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동물복지에서 동물은 감각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만, 그 대상은 인간과의 직

11) WOA. (2016).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Chapter 7.1. Introduction to the recommendations for animal welfare, Article 7.1.1.

12)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 시 다음 원칙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동물보호법. 법률 제20581호, 시행 2025. 6. 21.)

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산업동물(농장 및 실험 동물 등), 반려동물, 동물원 사육 동물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관계에 나타나는 특징을 볼 때 동물복지의 주체는 인간이며 대상은 동물임을 알 수 있다(우병준, 2014, pp. 1-2).

한편, 사람보다 동물을 중심으로 복지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개체론적 환경윤리(individualistic environmental ethics)는 개별 유기체인 동식물 등 생명체에 도덕적 지위나 자체 권리 또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정대영, 2012, p.143). 이렇게 개별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동물 권리론(animal rights) 차원에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동물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는 인간과 동물의 현실적 관계를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동물 권리론 대신 동물복지론(animal welfare)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인간에게 동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동물에 대해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박찬운, 2010, pp. 316-317).

동물복지에서 복지를 누리는 주체를 동물 자체로 보거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9), 동물보호는 양육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¹³⁾(정민국, 김동훈, 2024, p.21 재인용) 유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복지 수혜의 주체를 동물로 보고 있지만, 결국 동물복지 제공의 주체는 인간이 된다. 즉, 수혜의 주체인 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하지만, 그 실현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한 인간과 동물 간의 현실적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동물복지의 수행 주체인 사람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동물복지의 사회보장적 접근에 대상이 되는 동물은 반려동물이며, 사회보장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앞서 언급한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은 주로 경제적 또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에서 다뤄져 왔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의 복지와 직결되며, 반려인에 대한 복지 문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관련 복지문제 중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 필요성과 주요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 動物愛護と動物福祉は別物だよ(<https://doubutuhukusi.com/animal-welfare-difference/>)을 인용한 정민국과 김동훈(2024, p. 21)의 내용을 재인용

2. 사회보장과 동물복지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또한 동법 제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측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축소시키고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로 인해 해당 소유주 또는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차원의 급여 또는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이 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거나 주변의 반려동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¹⁴⁾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보다 동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며, 본 연구의 대상은 동물복지의 수행 주체인 사람이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복지에서 복지 제공의 주체는 사람이며 객체는 동물이 되며, 사회보장제도 제공의 주체는 정부이며 객체는 시민이 된다. 따라서 복지를 누리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회보장과 동물복지의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익과 윤리 등의 제약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위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 등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복지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동물복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하에 반려동물 양육을 통한 양육자와 반려동물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의 검토를 초점으로 한다.

14)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21065호) 제2와와 제3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제2절 반려동물 관련 사회보장적 접근의 필요성

1. 개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명백히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집합체로 그 직접적인 대상에 동물은 해당하지 않지만, 반려동물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자 및 양육 가구와 관련하여 복지 또한 사회보장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농장·실험·전시 동물에 대한 복지는 사회보장보다는 동물보호 등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을 사회보장 영역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된 바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이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즉,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과 시스템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그 이웃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부문이며, 또한 제3조에 제시된 것처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 및 그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적 개입의 필요성 측면을,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앞서 언급한 두 부문의 배경이자 정부개입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3)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적 개입의 필요성 관련 검토 사항〉

- 국민 삶의 질 향상 : 삶의 만족도 등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측면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정부의 직접규제방식, 간접규제 방식
- 외부불경제 및 외부경제 : 외부불경제로 인한 반려동물 과대공급과 외부경제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과소공급

2.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 또는 양육으로 반려인의 삶의 질 향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으로서의 개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에 대해 가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기준으로 양육 가구와 비양육 가구 간의 삶의 만족도, 행복 등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러한 결과들은 여론조사 형식으로 수행되어 공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들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¹⁵⁾, 반려동물 양육인에게 생활에 있어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반려동물을 1순위로 꼽거나¹⁶⁾,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된 결과¹⁷⁾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호·박종두(2018)는 “서울시 M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인 해당 사례연구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서울 또는 전국 통계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반려인의 만족도와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홍재원 외(2015, p.54)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형성된 소비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소비자 힐링

15) 2019년 8월 6일~ 8월 12일 나우 앤 서베이 패널 849명(남성 444명, 여성 405명: 반려동물 소유자 459명, 반려동물 비소유자 390명) 대상의 조사에서, 반려동물 소유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문항에 대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6.3점, 키우지 않는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5.9점으로 나타남(nownsurvey 홈페이지):

https://www.nownsurvey.com/board/hotissue/view/wr_id/100/ptype/all/stx에서 '22. 5.24인출.

16)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2018, p.28)

17)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61.5%가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에게 앞으로도 계속 기를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61.6%가 양육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황원경, 송광표, 2021, pp.27-29)

등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형성된 긍정적 태도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지원 외(2022)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분류한 후 반려동물의 유·무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람(2017)은 대전과 청주시의 반려동물 소유한 성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와 애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분석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및 애착이 높을수록 성인의 전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사회적 만족감과 경제적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아람(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유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소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10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 행복감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의 노령화로 인한 양육자의 돌봄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문영희·김효종(2011)은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반려동물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반려동물과 지내는 노인의 경우 우울증이 크게 감소하였고, 치료 측면에서도 오락 활동을 하는 것보다 동물을 이용한 치료가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반려동물 양육은 양육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면 이는 양육자의 삶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 사회보장적 개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의 측면을 만족도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단순히 기술 분석뿐만 아니라 인과관계 측면에서 파악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¹⁸⁾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 중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개물림 사고’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직접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반려견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강제적 규제를 통해 예방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경제적인 유인 등 행위자에 대한 선택 유도를 통해 반려동물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규제 방식이다.

전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은 해당 반려동물의 양육자에 대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의 영향을 끼치지만, 경우에 따라선 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끼칠 수도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물림사고의 위험에 대해 정부는 주로 직접규제 방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등록 대상 동물¹⁹⁾ 관리 강화 차원에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또는 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되었고,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해당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강화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a, p. 3). 이렇게 반려동물이 발생시킬 수 있는 직접적 위험을 통한 피해를 책무보험을 통해 경제적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다.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는 막대한 피해 보상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여 피해 보험 등에 대한 가입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수익성 저조가 예상되는 맹견 대상의 보험상품은 출시되지 않고 맹견 양육자 역시 비용이 수반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한 손해보험가입이 2021년부터 의무화되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²⁰⁾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1a, p. 2). 이는 사회적 위험 대비와 관련해서 책무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 정부의 직접규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1991년 제정된 맹견법(Dangerous Dogs Act 1991)에 의해 소유가 제한되는 맹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받고 마이크로 칩을 장착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탈출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상태에 있어야 기르는 것이 가능하다.²¹⁾ 독일의 경우 반려견의 물림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반려인에게

18)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을 부분 발췌하였음

19)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농림축산식품부, 2021a, p.3).

20) 동물보호법 제13조3의2

21) <https://doglaw.co.uk/dangerous-dogs/section-1-4b-dangerous-dogs-act-1991/>에서 '22.3.19 인출

지우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책임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데,²²⁾ 책임보험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료의 범위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²³⁾ 오스트리아에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²⁴⁾

책무보험에 대한 의무가입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에 대한 법제화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사회보장보다는 안전 측면의 정부개입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축소하는 측면에서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보장 영역에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후자에 대해 살펴보면, 간접적 규제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행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개입 방식인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대표적인 간접규제는 보유세,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보유세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외부효과 해결에 있어서 주요 대응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자체를 사회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우나, 보유세가 유기동물 규모에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개물림 사고를 축소시키거나, 보유세 징수를 통한 재원으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등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차원에서 사회보장 영역과 관계성을 가진다.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논의되는 ‘외부불경제 및 외부경제’ 부문과 제 4장의 ‘제2절 현안 및 연구 방향성 검토’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4. 외부불경제 및 외부경제

반려동물의 양육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효과가 모두 나타나게 된다. 어떤 사람의 경제적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효과’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긍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하고 손해를 끼치면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구분이 가능하다.²⁵⁾ 그런데 이러한 외부성의 개념을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편익을 가

22) 한국일보(21.2.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06000003329> '22.3.19 인출

23) midoguide.com.

<https://midoguide.com/ko/maintenance-and-care/how-much-is-dog-insurance-in-germany.html?nowprocke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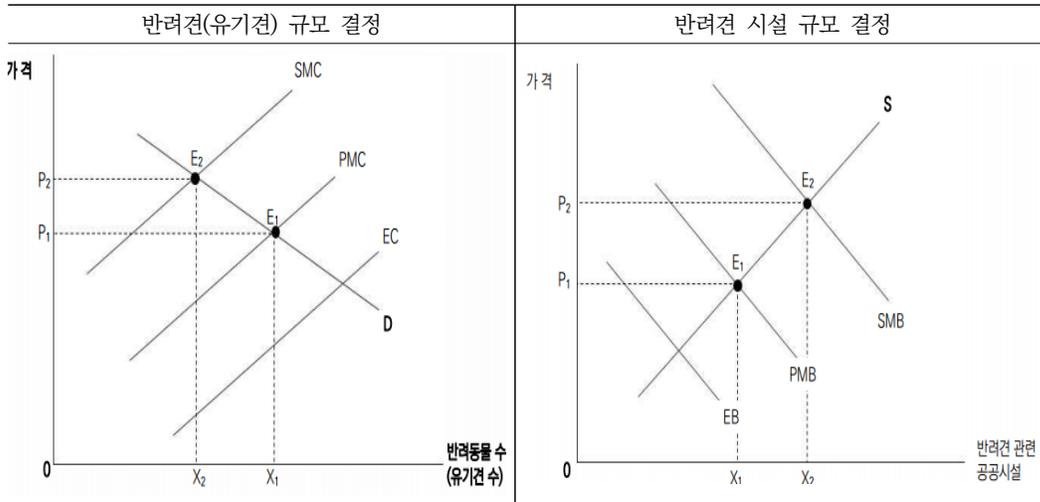
24) 한국일보(21.2.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06000003329> '22.3.19 인출

저오게 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는 경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할 때, 노인가구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정서적 지원 동물, 치료견 등 사역견 등은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유기견은 외부 불경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반려견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휴식 쉼터, 휴가철 반려견 보호 시설, 반려견을 위한 공공병원 등은 반려견의 사육 여건을 개선하면서 반려견에 의한 외부경제효과를 보다 내실화하는 장치라고 하겠다(유태현, 정재진, 안수남, 2020, p.89).

하지만 외부경제를 발생하는 위와 같은 시설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어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즉, 이러한 시설의 경우 사적 한계편익보다 더 큰 사회적 한계편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공급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공공재적 차원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한편, 유기견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유기견의 증가는 사람에 대한 개물림 사고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야생동물의 생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물림 사고의 증가는 광견병의 발생 등 사람 및 동물에 대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반려견 양육자는 반려견 양육 비용을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으로 인식하지만, 이러한 반려견 중에서 유기견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외부불경제에 해당되는 비용들이 초래하게 되고, 사회적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은 사적한계비용보다 높게 된다. 따라서 민간의 자율에 맡길 때보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유기견을 고려한 반려견의 규모는 더 축소되어야 하는데, 적정 수준 이상의 반려견이 수요 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외부 불경제의 내부화가 필요하다. 즉, 외부불경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들에게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이를 부담하게 만들면, 공급자가 스스로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또는 세금을 통해 수요자의 사적 한계비용을 외부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한계비용까지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²⁵⁾

25) 동아일보. (2009. 9.22). [전경련 교과서로 배우시대] 외부 효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090311/8706073/1>에서 '22.5.25 인출

[그림 2-1] 반려견 규모 및 반려견 관련 공공시설 규모의 결정



자료: 유태현, 정재진, 안수남. (2020), pp. 90-91.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

종합해 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 실패는 외부경제 측면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 시설의 과소공급을, 외부불경제 측면에서는 반려동물(유기견)의 과대 공급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표 2-2] 동물 관련 외부효과 해결방법

저자	대상	분류
오호성(2002)	축산업	·정부의 직접규제 : 금지, 허용기준, 용도지정 ·시장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 : 협상, 합병, 세금(부과금), 보조금 ·정부의 직접생산 : 공해방지시설의 건설과 운영, 공공재의 생산, 재개발과 원상복구, 연구와 교육
권오상(2007)	축산업	·사적교섭을 통한 해결, ·사법적 해결, 제도적·행정적 규제
지인배 외(2013)	축산업	·자발적 내부화 : 외부효과 발생자가 자발적으로 외부효과 내부화 ·사적교섭 : 이해관계자가 적을 경우 ·정부의 직접개입 : 법과 제도를 이용한 축산업 장려, 허용기준, 사육제한, 허가제, 사육거리 제한 등 ·정부의 간접개입 : 보조금 등을 통한 생산지원, 오염 저감장치 설치 및 시설이전 지원 ·정부의 직접생산 : 종자보호, 연구와 교육, 오염방지시설 건설 등
유태현 외(2020)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 단기적으로는 면허세 방식, 장기적으로는 규제세·책임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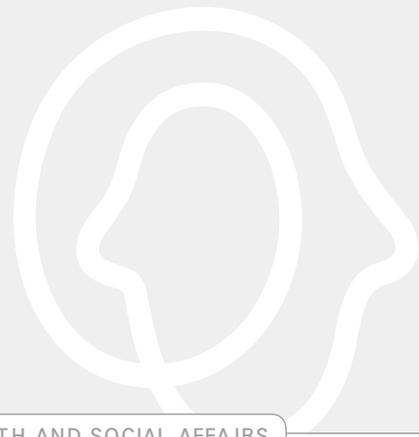
자료 : 지인배 외(2013, p.18), 유태현 외(2020) 발췌

26) 유태현, 정재진, 안수남. (2020), pp.90-91를 바탕으로 작성

반려동물과 관련된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해서 언급된, 정부의 직접규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 및 정책이 있다. 선행연구들(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오호성(2002)은 정부 차원의 직접규제과 정부의 시장유인을 바탕으로 한 간접규제, 정부의 직접생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권오상(2007)은 사적교섭, 사법적 해결, 제도적·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지인배(2013)는 자발적 내부화, 사적교섭, 정부의 직·간접 개입, 정부의 직접 생산으로 분류하였다(지인배 외, 2013, p.18).

축산업 측면에서 제시된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해결방안은 반려동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직접규제 또는 직접 개입하게 된다. 반려동물로 인한 외부성 대응 관련한 현행 반려동물 관련 규정으로는 반려동물 등록제, 외출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처리, 반려견 목줄 착용, 맹견 입마개 의무 착용, 반려동물에 의한 타인 상해에 대한 처벌 등이 있다(박효민, 박서연, 2019. p. 21). 한편, 정부의 간접개입 방법으로는 보조금과 세금 관련 혜택, 반려동물 의료비 등 지출특성을 반영한 소득 공제, 보유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직접적인 규제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들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다.²⁷⁾ 앞의 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공해방지시설, 오염방지시설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직접 공급하여 외부성에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복지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성이 큰 부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시설의 경우 사람과 동물의 복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와 관련한 시설의 제공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반려동물의 과대 공급 및 이로 인한 유기견 발생의 확대는, 국민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 또는 심화를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대응은 사회보장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된다.

27) 예를 들어 서울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에 대해 선착순 2만 마리에 대해 1만원 지원(경향신문, 2022.2.27. 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등록칩 1만원에 지원)



제3장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효과 검토

제1절 관련 조사 현황 및 주요 결과

제2절 반려동물 양육 관련 현황 및 특성

제3절 반려동물 양육 효과 분석: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제3장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효과 검토

제1절 관련 조사 현황 및 주요 결과

1. 반려동물 관련 주요 실태조사 현황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및 조사·분석하여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공표사항으로는,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등이 있다.²⁸⁾ 이러한 조사들은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 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이용하는 행정 집계조사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집계조사 방식의 실태조사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조사’,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이 있으며, 해당 조사 결과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되고 있다.

수요자 대상의 조사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2006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전국의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조사 방법으로는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개별면접조사가 적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조사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엠브레인·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24, pp. 2-3). 조사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 학대 관련 태도’, ‘반려동물 입약 및 분양’, ‘유실·

28) ‘동물보호법(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의 제94조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관련 인식', '동물실험 및 제도 관련 인식' 등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동물복지와 관련된 인식과 의식을 파악하여 동물복지 측면의 인식 제고와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엠브레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4). 해당 조사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행정 집계조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되고 있다.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조사와 함께 통계청은 통계법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반려동물 양육 비율과 가구주 및 가구 특성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을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정의하고,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은 물론 마당 등 야외에서 키우는 동물도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단, 특정 목적(사육, 경비, 수렵 등)을 위해 키우는 동물은 제외하였다(통계청, 2021, p. 28).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가 2017년 이후 다섯 차례 발간되었는데, 해당 보고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목적으로(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a, p.2), 설문조사·정성조사(표적집단심층면접)·선행연구 등 다양한 참고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반려동물 양육 관련 현황과 함께 주제별 심층면접(‘25년의 경우 펫로스 관련)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b, p.73, p.100)

2. 반려동물 관련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반려동물 관련 주요 실태조사의 결과 중 먼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중 반려동물 관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5%인 약 31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가구에서 개를 양육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1.6%, 고양이 양육가구는 3.4%, 기타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0.7%로 나타났다.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보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반려동물 양육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

령별로 살펴보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50대를 정점으로 그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려동물별로 살펴보면, 개의 경우 전체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50대를 정점으로 양육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이의 경우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양육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가구주의 성, 연령별 반려동물 가구 (2020년 기준)

(단위: 천 가구, %)

	계	반려동물 비양육	반려동물 양육	반려동물		
				개	고양이	기타
계	20,927 (100.0)	17,798 (85.0)	3,129 (15.0)	2,423 (11.6)	717 (3.4)	150 (0.7)
남성	14,081 (100.0)	12,033 (85.5)	2,048 (14.5)	1,603 (11.4)	441 (3.1)	109 (0.8)
여성	6,845 (100.0)	5,764 (84.2)	1,081 (15.8)	821 (12.0)	276 (4.0)	41 (0.6)
29세이하	1,774 (100.0)	1,553 (87.6)	221 (12.4)	138 (7.8)	81 (4.6)	10 (0.6)
30~39세	3,123 (100.0)	2,685 (86.0)	438 (14.0)	291 (9.3)	143 (4.6)	25 (0.8)
40~49세	4,260 (100.0)	3,556 (83.5)	704 (16.5)	507 (11.9)	179 (4.2)	54 (1.3)
50~59세	4,810 (100.0)	3,899 (81.1)	911 (18.9)	743 (15.4)	185 (3.8)	33 (0.7)
60~69세	3,787 (100.0)	3,241 (85.6)	545 (14.4)	472 (12.5)	86 (2.3)	16 (0.4)
70세이상	3,174 (100.0)	2,863 (90.2)	311 (9.8)	273 (8.6)	43 (1.3)	12 (0.4)

주) 반려동물은 복수응답으로 항목의 합은 전체보다 많음.

자료 : 통계청(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p.27)

아래 표는 가구주 및 세대 구성의 특성별로 반려동물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별한 상태인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구의 세대 구성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가구일수록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가구원이 한 명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표 3-2〉 가구주의 혼인상태, 세대구성별 반려동물 가구 (2020년 기준)

(단위: 천 가구, %)

	계	비양육	양육	양육		
				개	고양이	기타
계	20,927 (100.0)	17,798 (85.0)	3,129 (15.0)	2,423 (11.6)	717 (3.4)	150 (0.7)
미혼	4,185 (100.0)	3,689 (88.1)	496 (11.9)	331 (7.9)	170 (4.1)	18 (0.4)
배우자 있음	12,641 (100.0)	10,559 (83.5)	2,082 (16.5)	1,643 (13.0)	436 (3.5)	114 (0.9)
사별	2,094 (100.0)	1,859 (88.7)	236 (11.3)	201 (9.6)	39 (1.8)	8 (0.4)
이혼	2,006 (100.0)	1,691 (84.3)	315 (15.7)	249 (12.4)	72 (3.6)	11 (0.5)
1세대가구	4,152 (100.0)	3,505 (84.4)	647 (15.6)	533 (12.8)	130 (3.1)	19 (0.4)
2세대가구	9,209 (100.0)	7,559 (82.1)	1,650 (17.9)	1,271 (13.8)	367 (4.0)	98 (1.1)
3세대이상가구	719 (100.0)	575 (79.9)	144 (20.1)	118 (16.4)	29 (4.0)	8 (1.1)
1인가구	6,643 (100.0)	5,993 (90.2)	650 (9.8)	476 (7.2)	178 (2.7)	24 (0.4)
비친족가구	204 (100.0)	166 (81.5)	38 (18.5)	25 (12.5)	14 (6.7)	1 (0.5)

주: 복수응답으로 인해 반려동물 항목의 합계는 '계' 보다 많음.

자료: 통계청(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p.28)

이러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앞서 언급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결과와는 반려동물 양육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경우 전국 만 20~64세의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의 총 75개 항목을 조사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이며, 이는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한 규모이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 2021b, p. 2).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었다고 밝혔지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13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가 약 2,093만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가구의 약 15.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로 나타났다.²⁹⁾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는 조사 방식의 차이, 표본선택

의 오류, 조사 결과를 양육가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는 면접조사를 바탕으로(비대면 조사도 병행) 수행되었기 때문에 응답률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주제를 설문조사로 수행할 경우, 두 번째로 언급한 ‘표본선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크거나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응답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조사의 경우 이러한 선택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조사를 수행하게 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과대 추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국민의식 조사’는 전국의 만 20~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앞서 제시된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다른 연령대별 집단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65세 이상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그대로 전국 추정치로 제시했기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과대 추정한 측면이 큰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3-1] 조사별 반려동물 양육가구 규모: 2020년 기준



자료: 윤상준. (2021.9.27.).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313만·인구주택총조사 해보니 '반토막'.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54016>

29) 강진규. (2021.9.29.). 국민 4분의 1이 반려동물 키운다더니...통계청이 조사하니 '반토막', 한경.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9281733i>를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

제2절 반려동물 양육 관련 현황 및 특성

1. 개요

2023년에 수행된 재정패널 16차 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반려동물 양육 관련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재정패널 16차 년도 데이터의 경우 가구데이터와 가구원용 데이터 모두 반려동물 관련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데, 전자는 지난 1년(2022년) 동안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 여부 및 지출 금액이 조사되었다. 후자의 경우 부가조사로 수행되었으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의 분양 경로, 주요 항목별 반려동물 지출비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가구원용 즉 개인들에 대해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2%가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양육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6%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반려동물을 양육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약 69%로 나타났다.

〈표 3-3〉 현재 반려동물 양육 여부

(단위: %)

구분	응답비율
현재 기르고 있음	12.2
현재는 없지만 이전에 기른 경험이 있음	18.6
현재도 이전에도 기른 경험이 없음	69.2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재정패널 소식지, p. 9의 표를 일부 발췌함.

또한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1,785명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 관련 비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 중 반려동물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8.3%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지출 비용은 9.7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세부 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 중 먹이 및 사료에 대해 가장 많이 지출하며, 월평균 4.7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질병 예방 및 치료이며, 월평균 3.8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

는 개인의 의식 및 실태 등에 대해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소득과 같이 모든 가구원이 공유하게 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빈곤 등의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구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4〉 반려동물 양육 관련 비용: 월평균 지출 비용

(단위: %, 만원)

구분	해당 가구원		전체 가구원 평균
	비율	금액	
반려동물 관련 총비용	8.3	9.7	0.8
세부	먹이 및 사료	8.1	4.7
	사육공간 유지 및 관리	3.9	2.7
	질병 예방 및 치료	5.9	3.8
	기타(약세사리, 의료 등)	4.0	2.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재정패널 소식지, p.10

재정패널의 개인(가구원) 데이터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구분하여 소득수준 별 집단을 산출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집단 비율은 약 13.5%이며,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 100% 미만의 경우 약 24.1%,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 150% 미만의 경우 약 27.6%,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은 약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이러한 집단 구분으로 파악하여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집단에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약 8.0%이며,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 100% 미만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약 12.0%,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 150% 미만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약 13.1%,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약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집단에서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의 집단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1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는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집단 분포

(단위: %)

구분	분포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13.50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 100% 미만	24.12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 150% 미만	27.61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34.76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표 3-6〉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집단 분포

(단위: %)

구분	양육 분포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7.97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 100% 미만	12.04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상 150% 미만	13.12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13.19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2. 가구 특성별 반려동물 양육 지출 현황

앞서 가구원 자료의 경우 가구원 간 반려동물에 대한 중복 응답이 가능하고 반려동물이 있더라도 본인이 지출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이 없는 것으로 응답할 수 있다. 반면 가구 자료의 경우 반려동물의 양육 여부를 반려동물 지출 여부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가구 중 11.1%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부문에서 나타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인 15%보다 그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패널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는 그 목적과 표본 추출 그리고 조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양육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기술분석 결과는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경향성과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반려동물 관련 비용 지출 여부를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경우 16.1%가 반려동물에 대해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1인 가구의 경우 6.6%만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졌지만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지출 여부는 회귀분석 등 인과관계 분석에서 해당 가구에 반려동물이 양육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변수이다.

반려동물에 대해 지출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총소득은 연간 6,58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총지출은 약 4,93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에 대해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총소득은 약 5,199만 원이며, 총지출은 약 3,2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총소득과 총지출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해 지출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은 연간 약 1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총지출의 약 2.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가구당 월 지출 수준은 9.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가 약 14.2만 원(엠브레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4, p.114)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가구원수별 반려동물 관련 비용 지출 여부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Total
예	6.6	10.4	15.5	16.1	14.8	8.1	14.4	11.1
아니오	93.4	89.6	84.5	83.9	85.3	91.9	85.6	88.9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표 3-8〉 반려동물 관련 비용 지출 여부에 따른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단위: 만원)

구분	총소득	총지출 (A)	반려동물 지출 (B)	B/A	
전체	5,352.2	3,435.4	12.1	0.35%	
반려동물 지출여부	예 (11.1%)	6,580.4	4,925.7	109.4	2.22%
	아니오 (88.9%)	5,198.9	3,263.9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반려동물 지출 수준을 살펴보았다. 빈곤층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30%, 40%, 50%, 60%)을 각각 기준으로 했을 때, 경상소득이 해당 기준선보다 더 낮은 경우를 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기준별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 여부를 살펴보았다. 기준중위소득의 30%를 빈곤 여부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빈곤층의 약 4.5%가 반려동물 양육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중위소득의 40%, 50%, 60%를 각각 적용했을 때 빈곤층 중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각각 약 6.1%, 7.1%, 7.3%로 나타났다. 빈곤 여부에 대한 기준선이 높아질수록 반려동물에 대해 지출한다고 응답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9〉 현재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 여부

(단위: %)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여부		예	아니오	합계
기준중위 30%	비빈곤	11.5	88.5	100.0
	빈곤	4.5	95.5	100.0
기준중위 40%	비빈곤	11.7	88.3	100.0
	빈곤	6.1	92.9	100.0
기준중위 50%	비빈곤	11.9	88.1	100.0
	빈곤	7.1	92.9	100.0
기준중위 60%	비빈곤	12.1	87.9	100.0
	빈곤	7.3	92.7	10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기준중위소득 30% 적용 시 비빈곤층의 총소득은 약 5,665만 원인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빈곤층은 약 6,733만 원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들의 평균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구들(약 5,525만 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총소득은 약 639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관련 지출이 있는) 빈곤층의 경우 총소득이 약 683만 원으로, 양육하지 않은 빈곤층은 약 637만 원으로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에서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비중은 빈곤층인 반려동물 양육가구인 경우 2.51%로 나타나 비빈곤 양육가구(2.2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30% 적용

(단위: 만원)

빈곤여부		총소득	총지출 (A)	반려동물 지출 (B)	B/A
비빈곤		5,664.7	3,598.0	12.7	0.35%
빈곤		639.4	1,487.4	3.0	0.20%
비빈곤	양육	6,733.2	5,006.9	110.5	2.21%
	비양육	5,525.4	3,427.4	-	-
빈곤	양육	683.4	2,635.6	66.1	2.51%
	비양육	637.3	1,432.2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기준중위소득의 40%, 50%, 60%를 각각 적용했을 때에도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 모두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총소득과 총지출이 비양육가구의 총소득과 총지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비중의 경우 빈곤층인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비빈곤층인 반려동물 양육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40% 적용

(단위: 만원)

빈곤여부		소득	총지출 (A)	반려동물 지출 (B)	B/A
비빈곤		5,947.9	3,776.8	13.0	0.35%
빈곤		895.3	1,433.1	5.2	0.36%
비빈곤	양육	6,952.5	5,144.8	111.1	2.16%
	비양육	5,814.0	3,607.1	-	-
빈곤	양육	1,231.9	2,610.9	85.4	3.27%
	비양육	873.4	1,356.2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2〉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50% 적용

(단위: 만원)

빈곤여부		총소득	총지출 (A)	반려동물 지출 (B)	B/A
비빈곤		6,224.3	3,963.8	13.5	0.34%
빈곤		1,080.6	1,423.2	5.4	0.38%
비빈곤	양육	7,200.0	5,291.5	113.4	2.14%
	비양육	6,092.5	3,794.7	-	-
빈곤	양육	1,501.0	2,548.8	76.4	3.00%
	비양육	1,048.4	1,343.3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40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표 3-13〉 빈곤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60% 적용

(단위: 만원)

빈곤여부		총소득	총지출 (A)	반려동물 지출 (B)	B/A
비빈곤		6,503.9	4,132.0	13.8	0.34%
빈곤		1,287.3	1,532.7	6.0	0.39%
비빈곤	양육	7,413.1	5,433.4	114.1	2.10%
	비양육	6,378.0	3,960.6	-	-
빈곤	양육	1,705.2	2,527.6	81.5	3.22%
	비양육	1,254.3	1,460.9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빈곤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하였을 때 가구원수별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에서 반려동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중이 다른 가구 규모보다 높았으며, 1인 빈곤가구의 경우 총지출의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많으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빈곤층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1인 가구의 반려동물 지출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3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가구원수별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중: 가구, 연간, 기준중위소득 40% 적용

(단위: %)

가구원수	전체 가구	반려동물 관련 지출 가구		
		전체	비빈곤 가구	빈곤가구
1인	0.44	4.54	4.48	5.00
2인	0.36	2.50	2.48	2.41
3인	0.33	1.81	1.68	3.93
4인	0.26	1.54	1.53	1.73
5인	0.22	1.36	1.23	2.63
6인	0.06	1.21	1.21	-
7인	0.21	1.20	1.20	-
Total	0.35	2.22	2.16	3.27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비수급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총소득과 총지출이 비양육 가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가구의 경우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총소득과 총지출이 반려동물 비

양육 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모두 앞서 살펴본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와 마찬가지로 양육가구의 총소득과 총지출 수준이 비양육 가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수급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수급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 지출, 반려동물 지출

(단위: 만원)

수급여부		총소득	총지출 (A)	반려동물 지출 (B)	B/A
비수급		5,547	3,585	12.6	0.35%
수급		1,657	1,156	3.0	0.26%
비수급	양육	6,711	5,060	111.2	2.20%
	비양육	5,398	3,410	-	-
수급	양육	2,136	1,547	47.8	3.09%
	비양육	1,624	1,130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아래 표는 부문별 행복도를 반려동물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행복도를 측정하는 주요 변수로는 최근 1주일 동안 느낀 행복, 걱정, 우울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와 자신의 일을 가치에 대해서도 10점 척도로 조사한 것을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행복도를 반려동물 여부를 통해 살펴본 결과, 행복은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걱정 역시 반려동물 없는 경우 더 낮게 나타났다. 우울도 반려동물 없는 경우에 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자신의 일의 가치 측면에서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6〉 부문별 행복도 측정: 개인, 전체

(단위: 점)

반려동물 여부	행복	걱정	우울	삶의 만족도	자신의 일의 가치
없음	6.801	3.422	2.685	6.579	6.659
있음	6.749	3.628	2.726	6.582	6.720
전체	6.795	3.447	2.690	6.580	6.667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적용할 경우 빈곤층에서 반려동물 있는 경우 행복과 삶의 만

42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족도, 자신의 일의 가치에 대해 반려동물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과 우울도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하여 빈곤 여부를 판별할 시, 걱정의 경우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가 더 낮았으며, 자신의 일의 가치 역시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할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40%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다른 빈곤층에 비해 최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의 40%, 50%로 기준선을 상향하면, 걱정의 경우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가 더 낮았으며, 자신의 일의 가치 역시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지만, 우울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더 낮았으며, 행복과 삶의 만족 역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비양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반려동물 양육이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며, 저소득층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이 양육자의 행복을 제고하고 우울감을 낮춰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표 3-17〉 부문별 행복도 측정: 개인, 빈곤여부(기준중위소득 30% 적용)

(단위: 점)

	반려동물 여부	행복	걱정	우울	삶의 만족도	자신의 일의 가치
빈곤	없음	5.972	4.136	3.398	5.728	5.809
	있음	6.164	3.975	2.879	5.962	6.087
	전체	5.982	4.127	3.372	5.740	5.823
비빈곤	없음	6.844	3.385	2.648	6.624	6.704
	있음	6.760	3.621	2.723	6.594	6.732
	전체	6.834	3.415	2.658	6.620	6.707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8〉 부문별 행복도 측정: 개인, 빈곤여부(기준중위소득 40% 적용)

(단위: 점)

	반려동물 여부	행복	걱정	우울	삶의 만족	자신의 일의 가치
빈곤	없음	5.979	4.066	3.392	5.757	5.873
	있음	6.172	4.287	3.197	6.026	5.826
	전체	5.993	4.082	3.378	5.776	5.870
비빈곤	없음	6.888	3.354	2.610	6.667	6.743
	있음	6.781	3.591	2.700	6.613	6.770
	전체	6.875	3.384	2.622	6.660	6.746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9〉 부문별 행복도 측정: 개인, 빈곤여부(기준중위소득 50% 적용)

(단위: 점)

	반려동물 여부	행복	걱정	우울	삶의 만족	자신의 일의 가치
빈곤	없음	6.064	4.046	3.373	5.819	5.902
	있음	6.186	4.291	3.127	5.990	5.902
	전체	6.073	4.065	3.353	5.832	5.902
비빈곤	없음	6.920	3.321	2.574	6.702	6.782
	있음	6.802	3.565	2.688	6.638	6.798
	전체	6.905	3.353	2.589	6.694	6.78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하지만 수급자의 경우 직관적 예상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급층의 경우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에 행복, 삶의 만족, 자신의 일의 가치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과 우울도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가구의 상당수가 1인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반려동물 양육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행복, 삶의 만족, 자신의 일의 가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걱정과 우울은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에 따른 부문별 행복도 측정

(단위: 만원)

수급여부	반려동물 여부	행복	걱정	우울	삶의 만족	자신의 일의 가치
수급	없음	5.579	4.611	4.015	5.283	5.496
	있음	5.291	5.714	4.106	5.004	5.221
	전체	5.560	4.687	4.021	5.264	5.477
비수급	없음	6.849	3.375	2.633	6.630	6.705
	있음	6.779	3.585	2.697	6.615	6.751
	전체	6.841	3.401	2.641	6.628	6.711
비수급 빈곤층 (기준중위 40%)	없음	6.093	3.966	3.250	5.924	6.021
	있음	6.412	3.827	2.915	6.260	6.034
	전체	6.115	3.957	3.228	5.946	6.022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제3절 반려동물 양육 효과 분석: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1.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지금까지의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출 특성을 단순한 기술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많았지만,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가구규모, 지출, 소득수준 등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정량적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효과를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려동물 양육이 양육자의 인식 및 다양한 주관적 만족도에 미친 영향들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지만, 그중 반려동물 양육의 인식 및 정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수행된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한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인식 및 정서에 대한 차이점과 영향을 파악한 연구들이다.

〈표 3-21〉 관련 선행연구 현황 및 정리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 결과
문영희·김효종 (2011)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반려동물 매개활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의식변화 속에서 외로움, 고독, 자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 노인들의 소통 매개체로서 반려동물을 활용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제고 가능.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노미영·원소운 (2018)	-노인의 독거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및 6차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 분석 실시	-노인의 독거상태는 삶의 만족도와 건강상태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만족도도 감소시킴 -또한 실업자와 비경활인구집단에서 독거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킴
한아람(2018)	-반려동물 소유 성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파악	-대전시와 청주시에서 반려동물을 소유한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즐거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사육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지원 외 (2022)	-반려동물 유·무와 종류에 따른 20대 성인의 삶의 질 제고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파악	-이메일 통한 인식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대상 기준을 연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한	-삶의 질의 다양한 영역에서 반려동물 소유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음. -인과관계 비제시라는 한계점을 가짐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 결과
이종화·손영은 (2022)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대해 반려동물이 미치는 영향 파악	-2020년 수행된 서울시의 '도시정책 지표조사' 원자료 분석: 만 60세 이상 1인 가구(1,308명)의 응답자에 대해 분석(이원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 실시)	-반려동물 유무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의 효과는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독거노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자료: 문영희·김효중(2011), 노미영·원소윤(2018), 한아람(2018), 한지원 외(2022), 이종화·손영은(2022) 발췌 및 수정

반려동물의 양육효과는 주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삶의 질 제고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정성적·정량적 근거를 통해 그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 결과들로 볼 수 있다(Janssens, 2020; Smith 2012; 이종화·손영은, 2022, p.161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유무와 반려동물 관련 양육비용이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분석 결과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선행 연구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가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으며, 걱정과 우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정량적인 분석도 이뤄졌으나 반려동물 관련한 전국 단위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규모 및 활용 변수 차원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본 분석은 2023년에 수행된 재정패널 16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반려동물 양육 관련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해당 연도의 경우 전체 8,741가구의 14,984명의 가구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분석 방법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반려동물 양육 효과의 종속변수는 총 11점(0~10점)의 리커드 척도로 조사된 삶의 만족에 대한 문항이다. 해당 종속변수는 서열화된 변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 또는 프라빗 모형 등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해당 분석을 그대로 순서형 로짓 등을 적용할 경우 분석 및 해석 방법이 복잡하여, 선행 연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식 조사의 결과 값을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11개(0점~10점)에 달하는 변수 값을 3~4개로 줄여 순서형 로짓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종속변수 값을 임의로 구분해야 하는 등 분석상의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양육 효과의 접근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는 개인 차원에서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용이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개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해당 분석에서 반려동물 보유 여부와 반려동물 관련 지출을 동시에 분석할 경우, 두 독립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 발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석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반려동물 양육 여부 변수)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집단에 대한 분석(반려동물 관련 지출 변수)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빈곤여부에 따라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빈곤층을 판별하고 각각에 대해서도 반려동물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표 3-22〉 활용 변수와 내용

구분	변수	변수 내용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최근 귀하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1점 척도 (0: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 10: 매우 만족했다)	
독립 변수	반려동물 유무	있음 =1, 없음 = 0.	
	개인 반려동물 지출	연간 반려동물 관련 지출비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남성 =1, 여성 = 0.
		연령	연령(birth0)
			연령*연령(birth1)
		학력수준 (대졸이상 기준)	초졸이하= 1, 중졸= 2, 고졸= 3, (전문)대졸이상= 4
		직업여부	1. 취업자, 0. 미취업자
		종교	있음 = 1, 없음 = 0
		본인소득	개인소득의 합(사회보험금, 민간보험금 정부지원현금, 근로소득, 순사업소득)의 자연로그 값
	가구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① 건강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가구원수	가구규모
		혼인상태	유배우 = 1, 무배우 = 0
	제도 효과	본인의 가구소득	가구의 연간총소득에서 본인소득(개인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자연로그 값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 = 1, 비수급 = 0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 여부	수급 = 1, 비수급 = 0
		거주지역	1=서울 / 2=경기,인천 / 3=광역, 세종, 창원/ 4 = 그 외

자료: 저자 작성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 지출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활용할 경우, 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게 추정된 계수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을 구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반려동물 유무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에,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2.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집단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양육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졸 기준으로 다른 학력인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자인 경우와 종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한편,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경우 그 외 지역을 기준으로 경기 및 인천에서 거주할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대상 집단을 전체 집단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층 등 그 범위를 한정하면, 계수의 부호 값이 바뀌거나 분석 대상의 감소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반려동물 유무가 양육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양육할 경우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집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집단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적용 시 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의 유무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적용 시 비빈곤층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양육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빈곤층을 여러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36세 미만의 청년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을 양육했을 때 삶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반려동물 유무

종속변수	변수	전체		수급층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Coef.	S.E	Coef.	S.E	빈곤층		청년빈곤층		
독립변수	반려동물 유무 (있음=1, 없음=0)	-0.033	0.038	-0.292	0.321	0.090	0.138	0.973 *	0.468	
개인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0.097 ***	0.026	-0.171	0.183	-0.070	0.085	0.003	0.400	
	연령	-0.030 ***	0.005	-0.072 *	0.034	0.015	0.016	-0.080	0.061	
	연령*연령	0.000 ***	0.000	0.000	0.000	0.000	0.000			
	학력 (대졸 기준)	초졸이하	-0.197 ***	0.055	0.243	0.246	-0.031	0.109	0.000	-
		중졸	-0.117 *	0.051	0.377	0.260	0.101	0.121	-0.809	2.077
		고졸	-0.261 ***	0.029	-0.311	0.230	-0.276 **	0.103	0.232	0.405
	직업여부 (취업자=1, 미취업자=0)	0.111 **	0.042	-0.200	0.220	0.163	0.098	0.125	0.473	
	종교여부 (있음=1, 없음=0)	0.181 ***	0.027	-0.044	0.173	0.040	0.076	-0.905	0.510	
	본인소득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0.000	
	주관적 건강상태 (기준: 건강하지 못한 편임)	건강함	1.301 ***	0.045	0.895 ***	0.231	1.404 ***	0.099	4.900 ***	0.916
		보통임	0.347 ***	0.023	0.530 ***	0.104	0.430 ***	0.047	1.940 ***	0.516
가구특성	가구원수	-0.035 **	0.012	-0.144	0.104	-0.162 **	0.054	-0.141	0.212	
	배우자 여부 (있음=1, 없음=0)	0.344 ***	0.032	0.414	0.225	0.320 **	0.100	0.874	0.879	
	가구소득 (본인소득 제외)	0.000 **	0.000	0.005	0.004	0.007 **	0.002	0.001	0.008	
제도 (수급=1, 비수급=0)	공적연금 수급여부	0.205 ***	0.037	0.100	0.264	0.190 *	0.096			
	국기초 수급여부	-0.564 ***	0.069			-0.521 ***	0.107	2.278 *	0.858	
지역 (그외 지역 기준)	서울	-0.046	0.036	-0.157	0.229	-0.021	0.108	-0.929	0.528	
	경기, 인천	-0.462 ***	0.032	-0.875 ***	0.200	-0.448 ***	0.091	-0.485	0.455	
	광역, 세종, 창원	0.062	0.035	0.477	0.253	0.125	0.106	-0.839	0.637	
	상수	6.303 ***	0.128	7.771 ***	1.090	4.648 ***	0.476	3.883	1.958	
	R-squared	0.1607		0.2185		0.1849		0.5592		
	Adj R-squared	0.1596		0.1854		0.1766		0.4277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아래 표는 반려동물을 양육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집단의 특성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하는 전체 집단의 경우, 반려동물 지출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층과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비빈곤층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집단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적용 시 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반려동물 지출 증가는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은 개인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의 50% 기준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보다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지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수급 가구의 경우 비수급 가구에 비해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지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가구와 빈곤층의 경우 비수급가구나 비빈곤층보다 총지출 대비 반려동물 관련 지출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반려동물의 상대적 지출수준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가능성이 커짐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개인의 효용 또는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지는 않는다.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반려동물 관련 총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급여부에 따라 비수급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15.01% 수급자의 경우 해당비율이 10.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비빈곤층의 경우 해당 비율이 14.94%, 빈곤층은 14.8%인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지출 중에서 의료비 지출의 상대적 지출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앞서 반려동물 양육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 중 의료비 관련 지출과 비의료비 지출의 영향이 충돌하여 발생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3-24〉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반려동물 양육자 대상 반려동물 지출비

종속변수	변수	전체		수급층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Coef.	S.E	Coef.	S.E	빈곤층		노인빈곤층		
독립변수	반려동물 관련 지출비	-0.001 *	0.000	0.026 *	0.010	0.004 *	0.002	0.008 *	0.004	
개인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0.106	0.075	1.006	0.808	0.385	0.377	1.519 *	0.660	
	연령	-0.033 *	0.015	-0.161	0.177	-0.005	0.063	-0.056	0.048	
	연령*연령	0.000	0.000	0.001	0.002	0.000	0.001			
	학력 (대출기준)	초졸이하	-0.084	0.201	0.158	1.438	-0.148	0.631	0.442	0.792
		중졸	-0.318 *	0.151	-0.826	1.375	-0.032	0.539	1.166	0.814
		고졸	-0.289 **	0.077	0.097	1.226	-0.107	0.437	-0.734	0.834
	직업여부(취업자=1, 미취업자=0)	0.000	0.129	-1.155	1.299	-0.138	0.454	-1.199	0.635	
	종교여부(있음=1, 없음=0)	0.123	0.075	-0.255	0.892	0.645	0.342	0.751	0.540	
	본인소득	0.000 *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주관적 건강상태 (기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함	1.115 ***	0.138	2.973 *	1.342	0.545	0.507	1.870 *	0.698
보통임		0.273 ***	0.072	1.447 **	0.472	0.251	0.245	0.442	0.310	
가구특성	가구원수	0.007	0.035	-0.181	0.380	-0.196	0.205	0.388	0.601	
	배우자 여부 (있음=1, 없음=0)	0.298 **	0.094	1.274	1.004	-0.627	0.489	-1.253	1.012	
	가구소득 (본인소득 제외)	0.000	0.000	0.008	0.012	0.002	0.006	0.000	-	
제도 (수급=1, 비수급=0)	공적연금 수급여부	0.244 *	0.116	1.945	1.885	0.322	0.584	-0.737	0.904	
	국기초 수급여부	-0.816 **	0.257			-1.427 **	0.539	-1.305	0.715	
지역 (그외 지역 기준)	서울	-0.262 *	0.116	0.130	1.430	-0.902	0.517	-1.110	0.797	
	경기, 인천	-0.541 ***	0.086	-0.383	0.936	0.035	0.378	-1.599 *	0.630	
	광역, 세종, 창원	-0.296 **	0.109	1.396	1.313	-0.066	0.644	-1.011	0.806	
	상수	6.833 ***	0.384	8.244	4.484	6.808 ***	1.762	9.135 *	3.860	
	R-squared	0.1322		0.5267		0.2186		0.3543		
	Adj R-squared	0.1223		0.1179		0.1011		0.1505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규모에 비해 빈곤문제가 심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에서도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74%에 이를 정도로(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p.27) 빈곤의 개인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인 가구는 가구 규모 측면에서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인데, 이러한 1인 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과 1인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인 가구에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빈곤층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과 아래 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1인 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질환으로 인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비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 전체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9%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층의 1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반려동물 양육하는 전체 1인 가구의 경우와 비빈곤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적용 시 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 지출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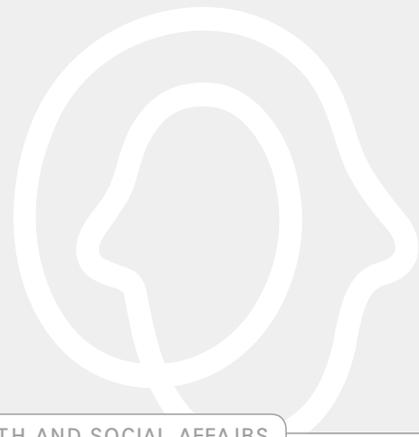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1인 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집단에 대해 반려동물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은 물론 해당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25>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1인 반려동물 양육가구

변수	반려동물 유무				반려동물 관련 지출비					
	빈곤층		비빈곤층		빈곤층		노인빈곤층			
종속변수	삶의만족(0~10점)									
독립변수	반려동물 유무 (있음=1, 없음=0)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반려동물 관련 지출비						0.020 **	0.005	0.015 *	0.005
개인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0.136	0.182	-0.218 **	0.081	3.254	1.565	0.293	1.472
	연령		0.050 *	0.026	-0.055 ***	0.015	0.169	0.204	0.020 *	0.074
	연령*연령		0.000 **	0.000	0.001 ***	0.000	-0.002	0.002		
	학력 (대졸 기준)	초졸이하	-0.169	0.175	-0.458 **	0.171	0.846	1.190	-1.379	1.539
		중졸	0.068	0.220	-0.183	0.162	3.536 *	1.258	-0.025	1.393
		고졸	-0.465	0.198	-0.294 **	0.095	1.030	1.290	-0.985	1.189
	직업여부 (취업자=1, 미취업자=0)		0.144	0.185	0.229	0.143	-3.183 *	1.098	0.262	0.815
	종교여부 (있음=1, 없음=0)		-0.059	0.134	-0.014	0.090	2.573 *	0.949	0.763	0.678
	본인소득		0.000 **	0.000	0.000 **	0.000	0.002	0.002	-0.001	0.000
	주관적 건강상태 (기준: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함	1.607	0.179	0.950 ***	0.147	1.932	1.239	3.869 **	1.176
보통임		0.540	0.083	0.078	0.074	0.257	0.476	0.781	0.553	
제도 (수급=1, 비수급=0)	공적연금 수급여부		0.239	0.176	0.108	0.122	-5.352 **	1.444	-0.532	0.709
	국기초 수급여부		-0.639	0.170	-0.629 **	0.229	-2.879	1.374	-0.702	1.372
지역 (그외 지역 기준)	서울		-0.147	0.186	-0.119	0.107	-2.134	1.484	-2.562	1.290
	경기, 인천		-0.842	0.161	-0.275 **	0.100	-3.789 *	1.263	-0.638	0.873
	광역시, 세종, 창원		-0.119	0.193	0.264 *	0.107	-3.573 *	1.383	-0.948	1.081
상수		3.953	0.726	6.866 ***	0.357	3.681	4.289	3.812	6.085	
R-squared		0.2575		0.1434		0.8690		0.6831		
Adj R-squared		0.2372		0.1338		0.6834		0.416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2023년(16차연도) 재정패널조사 원자료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반려동물의 양육 여부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해당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더욱 개선된 분석 방법을 활용한 검토 및 후속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제4장

주요 결과 및 함의와 관련 현안 검토

제1절 주요 결과 및 정책 함의
제2절 현안 및 연구 방향성 검토

제4장 주요 결과 및 함의와 관련 현안 검토

제1절 주요 결과 및 정책 함의

1. 반려동물 양육과 주관적 행복도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효과를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부문별 행복도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행복도는 최근 1주일 동안 느낀 행복, 걱정, 우울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신의 일의 가치에 대해 11점(0~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부문별 행복도를 반려동물 여부를 통해 살펴본 결과, 행복은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에, 걱정과 우울은 반려동물이 없는 경우 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와 자신의 일의 가치의 경우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문별 행복도를 빈곤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준중위소득의 30% 기준 적용 시, 빈곤층의 경우 행복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신의 일의 가치에 대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과 우울도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선의 기준을 높여 파악해 보았을 때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빈곤층이 행복 및 삶의 만족도가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은 빈곤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정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에 비해 행복, 삶의 만족도, 자신의 일의 가치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걱정과 우울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빈곤층의 행복, 삶의 만족도 제고와 걱정과 우울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인과관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이 행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를 파악해 보았

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효과는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른 효과와 반려동물 관련 지출의 효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았다.

2. 반려동물 양육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의 효과로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 지출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활용하게 되면, 두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게 되어 추정된 계수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반려동물 유무가 삶의 만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에,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 유무가 양육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양육 여부는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빈곤층을 여러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36세 미만의 청년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을 양육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 양육하는 전체 집단의 경우, 반려동물 지출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집단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적용 시 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 지출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경우 반려동물 지출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은 대부분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지출을 지원할 경우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등이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반려동물의 상대적 지출 수준이 클수록 양육자의 효용을 제고시키는 것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함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빈곤층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노인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

한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여부 측면에서는 청년빈곤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반려동물 보유가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해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을 지원해주는 것과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반려동물 보유에 대해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의 지출 중 의료비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응답자 개인 기준으로 반려동물 관련 총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급 여부에 따라 비수급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15.01%, 수급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10.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으로 비빈곤층의 경우 해당 비율이 14.94%, 빈곤층은 14.8%인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지출 중에서 의료비 지출의 상대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은 물론 해당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보유세, 반려동물 관련 통계작성 방향 등 다른 주요 현안과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방향성도 같이 검토해 보았다.

30) 하지만 노인과 청년의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자는 물론 반려동물의 특성이 모두 고려되어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제2절 현안 및 연구 방향성 검토

1. 반려동물 보유세

제2장에서 살펴본 반려동물과 관련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인한 정부 개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은 과소 공급 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유기견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여 정부개입이 필요한데, 여기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이다.

이전부터 반려동물의 보유 및 양육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물림사고, 배설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의 수반과 관련하여 사회 정책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고 외부불경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보유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과제목표인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대해³¹⁾,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 및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제기되었다(권용수, 이진홍, 2020, p. 129).

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 중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이 포함된 조사들이 있는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조사에서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 및 양육자 책임 강화 방안의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 중 등록비 또는 세금 부과 등에 대해, 응답한 반려동물 양육자의 71.0%가 찬성(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2025, p.27)³²⁾. 한편, 데일리벳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조사(2024.9.23.~11.25)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 802명 중 55%인 441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³³⁾, 서울신문과 공공의 창이 공동 기획한 인식조사(2022.6.8.~6.9)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6%가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⁴⁾. 조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31) 대한민국 정부. (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p.128

32) 위 조사는 2024년 기준으로 20~69세의 전국 성인 남녀 중 반려동물 양육자 총 1,122명에 대해 수행됨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2025, p.3)

33) 출처: 데일리벳. (2024.11.26).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29803>

보유세에 대한 찬성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규모가 천 명 안팎인 조사로 전체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결과의 일반적인 적용에는 주의를 요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외부성으로 유기동물의 확대와 관련 시설의 과소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동물의 보유세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에 대해 유기동물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양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국가들과 도입했지만, 지금은 시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두 번째로 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반려동물 양육 규모 및 유기 동물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정량적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적용 대상은 주로 반려견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꼽을 수 있는데, 고양이는 그 양육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을 점유하여 활용하는 것이 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의 주된 과세 대상은 반려견이 된다. 김남욱(2022)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일부 주 고양이 포함),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경우 반려동물 중 주로 개에 대해 4~6개월 이상 보유 시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세는 동물보호소 운영, 중성화 비용, 반려견 휴게시설 확충, 관련 길거리 청소비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김남욱, 2022, p.156). 고양이의 경우 개와 비교해 볼 때, 양육 시 외부 불경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개보다 높은 번식력으로 인해 유기묘 문제가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고양이에 대한 보유세 적용을 찾기 어려운데, 이는 보유세 부과가 반려견에 비해 실제적인 효과가 낮을 것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해외 동물 보유세 사례를

34) 출처: 유대근, 최훈진, 이주원, 이근아. (2022.6.26.). 반려 동물 보유세 국민 56% “찬성” [2022 유기동물 리포트-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서울신문.

살펴보면 반려견 1마리당 보유세를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신 중성화 수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싱가포르·스페인에서는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있는 물품에 부과되는 성격을 지니므로 세금이 아닌 특정 목적의 부과금(fee)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과금은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기 시 추적, 양육자 변경 관리, 반려동물 예방접종 관리, 공격적 행동 이력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부과금 역시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³⁶⁾

반려동물 보유세의 효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반려동물 양육 및 유기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수요의 보유세 탄력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적·물리적 비용은 적게 들지만 다양하고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그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식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대한 사회적 실험으로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 보유세의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지방세로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하거나 유기견 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려견 보유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5) 뉴스토마토 (2023.6.9.). [토마토레터 제190호]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제대로 가고 있다.

36) 전문가 자문회(2025. 8. 22. 반려동물 정책현안 관련 전문가 자문) 자료 반영

2.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³⁷⁾

과거부터 반려동물 의료비와 관련하여 가격이 높은 것은 물론 그 책정 기준도 제각각 이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들은 이미 제기된 문제이다. 또한 저소득층 보호자와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동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박주연, 2017).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관점을 전환하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이다(대한민국 정부, 2025, p.128). 해당 과제의 세부 과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공공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표준수가를 우선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하고 민간 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 400개소까지 확대하여³⁸⁾, 반려동물 관련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하는 계획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민간 확산 전략은 한국 반려동물 의료제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일단 공공동물병원은 반려동물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익형 표준수가제는 의료비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양육자의 부담을 완하시킬 수 있다. 한편,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은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좀 더 살펴보면, ‘공중보건’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사회적 투자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은 단순히 보호자 부담 경감을 넘어, 유기동물 감소,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반려·비반려인 모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하다. 이미 반려동물 진료비 가격 게시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지자체별 중성화 지원, 예방접종 보조, 노령 반려인 지원 바우처 등이 시행 중이어서 공공동물병원과 표준수가제 확산의 발판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은 IT 인프라(전자청구, 데이터 허브)와 지자체 동물복지 행정 경험이 결합되어, 빠른 제도적 성과를 낼 수 있다. 공공동물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민간 확산이라는 단계적·확산적 접근은 동물복지 강화, 사회적 비용 절감, 산업 생태계 선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이다. 필수·예방 진료

37) 본 과제에서 수행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8월22일, 8월27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38) 윤상준. (2025, 9.18). ‘공공동물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이재명 국정과제안에..수의사회 ‘부정적’. 데일리벳

(중성화, 예방접종, 기초검진 등)를 중심으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자는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하여 실질 부담 경감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보험화·확대 적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보험과 표준수가제를 연계하여 보호자 선택권 확대, 보험 시장 안정화, 가격 비교 플랫폼을 통해 병원 간 경쟁을 유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동물 의료수가제 폐지 이후 동물병원비가 제각각인 실정으로 동일한 질병에 대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승훈 외, 2021, p.47). 따라서 반려동물 표준수가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수의업계의 일부 의견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질병이라고 해도 수의사마다 접근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진료비의 차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표준수가가 정해지면 비용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표준수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따른 진료행위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동물병원 중심으로 표준수가를 도입하고, 민간동물병원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공공동물병원 운영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수의사의 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유지 가능한가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에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공동물병원 역시 민간동물병원 수의사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수의사 모집 등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 표준수가 도입은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반려동물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표준수가 도입을 통한 의료비 표준화가 필수적인데, 표준수가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상품설계에 보수적이 되며, 이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저해시키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제도의 효율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수요자 측면의 만족도 및 정책 효과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조사 통계의 필요성

앞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경우 성인 대상(65세 이상 제외)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 조사에 응답하는 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조사의 목적과 특성상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행정 집계자료를 통한 통계는 매년 수집 공표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들만으로는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관련 인식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 조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전국 단위의 국가승인 통계를 통해 반려동물의 보유 및 가구 기본 특성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성 높은 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해당 가구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인식 그리고 정책 관련 평가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실태조사는 두 개의 유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전국 단위의 가계조사처럼 반려동물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구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표본 가구를 조사하되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분하여, 1차 조사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해 조사하되,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반려동물 관련 인식 등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답변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1차 조사로 수행하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판별된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와 인식 그리고 정부 정책의 효과성 및 관련 욕구를 파악하는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에 반려동물 양육 관련 변수를 포함시킬 필요 없이 해당 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비율 및 비양육 가구를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조사처럼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분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 통계청 조사처럼 한 번의 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현황과 양육자(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되, 반려동물의 연

령 등 필수적인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대안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의 다른 한 가지 접근법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만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실태와 정부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을 모집단으로 하여 여기에 표본추출을 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전자의 비해 판별 조사 등이 수행되지 않고 반려동물 비양육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양육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고 등록된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반려동물 실태조사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방법과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매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에 적은 문항을 조사하는 것보다 매 3년마다 충분한 표본에 대해 상세한 문항을 조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실태조사에서도 매 3년 마다 관련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는 전국단위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국민생활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 매년 복지 인식 및 관련 실태 조사 역시 수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같이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65세 이상 대상을 조사 응답에서 제외되는 방식은 전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여러 장점이 존재하지만, 면접조사와는 달리 조사 거부가 상대적으로 용의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대상자에서 제외할 경우 반려동물 양육규모를 과대 추계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따라서 개별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조사의 대상을 일정 연령의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조사하되 성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게 관련 인식을 모두 조사하거나 주 양육자나 가구주에게 대표로 응답하게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 자체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개인보다는 전체 가구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반려동물 지출이 가구 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단위의 접근보다는 개인을 포함한 가구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조사는 매년 조사 수행을 통해 조사대상의 인식 및 의식 변화

를 연간 단위로 파악하여 반려동물 관련 복지 및 정책 욕구 파악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관련한 통계 자료는 기존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행정집계조사와 함께 3년 단위의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매년 수행되는 국민의식조사로 구분하고 서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4. 취약계층 지원의 방향성

반려견 양육을 통해 양육자의 행복이 증진되고 삶의 질을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구조와 변화로 인한 가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서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저소득층,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반려동물 보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청년 집단의 경우 반려동물 보유가 삶의 만족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비용을 낮추어 이들의 반려동물 보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 구분을 통한 정책지원은 다른 연령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보유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 보다 정교한 통계 분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이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양육자의 삶의 만족도는 물론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려동물의료비 경감에 대해 앞서 논의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내용들에 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양육 취약계층의 지출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급층은 반려동물 보유 여부와 달리 반려동물 지출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부(-)의 방향성을 나타

내는 상황에서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감소되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수급자로 확대되는 것이 실제 삶의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선정기준과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도의 복잡성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고령화와 질환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반려동물 양육여부와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문을 모형에 도입할 경우 모형에 대한 설명력과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져 고려하지 않았다. 반려동물 양육의 효과는 반려동물의 양육 여부의 결정요인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감안 한 정책 방향성 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82호 (2020).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9706호 (2023)
- 강진규. (2021. 9.29.). 국민 4분의 1이 반려동물 키운다더니...통계청이 조사하니 '반토막',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9281733i>
- 경향신문(2022.2.27.). 경향신문, 2022.2.27. 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등록칩 1만원에 지원. <https://www.khan.co.kr/article/202202271115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837&lsId=00041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에서>
'25.4.22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에서>
'25.4.22 인출
- 권오상. (2007). 환경경제학. 제2판. 박영사.
- 권용수, 이진홍. (2020).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租稅와 法 제13권 제1호, 2020년 6월 30일, pp.127~161, Tax and Law Law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Vol.13, No.1 Jun. 2020
- 김남욱. (2022). 대한민국 정부. (2025).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재정고권 강화- 견 보유세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75호 제22권 제3호 2022년 9월
- 김면수, 김용석, 김진갑 외. (2018). 말 복지. 한국마사회. KHIS 말산업 표준화 매뉴얼 시리즈 13
- 김석은. (2020).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흥성 의견(義犬)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년 Vol. 20 No. 12
- 김성호, 박종두. (2018).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고찰 : 서울시 M 종합 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슈퍼비전과 실천연구 3집, 한국사회복지슈퍼비전학회,

Vol. 3, 2018. 11, pp. 83-104

나인지. (2014).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세계농업 제163호, pp. 1-13. 해외·농업 농정 포커스, 2014. 4

nownsurvey 홈페이지.

https://www.nownsurvey.com/board/hotissue/view/wr_id/100/ptype/all/stx
/에서 '22.05.24인출

네이버 국어사전. 우리말샘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b63773de3d64152bf371f1a296cbd38>
에서 '22.3.15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6006&cid=40942&categoryId=32310>
에서 '22.3.15 인출

노미영, 원소윤. (2018). 노인의 독거상태가 객관적·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 패널연구를 활용한 종단연구. 통계청논문공모전.

농림축산식품부. (2021a).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보도자료, 보도일시(2021. 2.10.). 담당부서: 동물복지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2021b).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보도일시(2021. 4.23.). 담당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2023).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보도일시(2023.2.2.). 담당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2025).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보도일시(2025.1.22.). 담당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반려동물 알기.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
에서 '22.3.15 인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반려동물의 의미.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210524110205412
에서 '22.3.15 인출

농촌진흥청. <https://www.rda.go.kr/children/pageUrl.do?menu=anim&pg=0101>에서
'25.4.22 인출

뉴스토마토. (2023. 6. 9.). [토마토레터 제190호]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제대로 가고 있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90281>

- 대한민국 정부. (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년 9월, p.128
- 대한민국 정부. (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 데일리벳. (2024.11.26.).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비율, 2년 만에 10%p 감소. 데일리벳 관리자.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2980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 동물보호법, 법률 제20581호 (2024), 시행 2025. 6. 21.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5).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
- 동아일보. (2009. 9.22). [전경련 교과서로 배우시다] 외부 효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090311/8706073/1에서>
 '22.5.25 인출(업데이트 2009-09-22)
-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4185&cid=40942&categoryId=32310>에서 '25.4.22 인출
- 문영희, 김효중. (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
 역사회복지학, Vol. 37, 2011. 6. 1. pp. 455-477.
-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
- 박주연. (2017).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환경법과 정책, 2017, vol.19,
 pp. 99-130
- 박진언. (2019). 동물복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축산식품과학과 산업, v.8 no.1, pp.78-86
- 박찬운. (2010).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유럽 상황을 중심으로. 법조 2010. 1. Vol. 640. 연구
 논문
- 박효민, 박서연. (2019).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경기연구원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9호 (2021).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2025. 10. 1.]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9). 서울 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제8편 동물
 의 권리. 서울시복지재단
- 엠브레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4).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오호성. (2002). 자원 환경경제학. 법문사
- 우병준. (2014). EU 동물복지정책 동향. 세계농업 제163호, 해외·농업 농정 포커스, 2014. 4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C%B2%B4%EB%A1%A0%EC%A0%81_%ED%99%98%EA%B2%BD%EC%9C%A4%EB%A6%AC에서 '25.4.28 인출
유대근, 최훈진, 이주원, 이근아. (2022.6.26.). 반려 동물 보유세 국민 56% “찬성” [2022
유기동물 리포트-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plan/pet1/2022/06/27/20220627001006>,
유태현, 정재진, 안수남. (2020). 반려견 보유세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연구,
2020, vol.20, no.4, pp. 85-110
- 윤상준. (2021.9.27.).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313만··인구주택총조사 해보니 `반토막. 데일
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54016>
- 윤상준. (2025. 9.18.). '공공동물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이재명 국정과제안에..수의사회
'부정적'. 데일리벳.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57915>
- 이종화·손영은(2022).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
과 사회적 지지망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2022, 159-172
- 전문가 자문회의. (2025. 8. 22). 반려동물 정책현안 관련 전문가 자문. 과제 회의 자료
- 전문가 자문회의. (2025. 8. 27). 반려동물 정책현안 관련 전문가 자문. 과제 회의 자료
- 전승훈, 고명덕, 박주현. (2021).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
구원
- 정대영. (2012).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동물해방론 비판. 순청향 인문과학논총 제31권 2호,
pp.140-170
- 정민국, 김동훈. (2024).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10
- 지인배, 송우진, 김진년, 이용건. (2013).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20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보도자료, 보도일
시(2021. 9.27.), 담당부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한국일보. (21.2.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06000003329> '22.3.19
인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16차년도 부가조사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2024년 재정패널 소식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
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 세트, 코드북]. 재정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panel/data/AllList/paData/view.do>
- 한아람. (2017). 성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및 애착과 삶의 질과의 관계, 인문사회 21, 제8

권 제6호

한아람. (2018).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와 성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9권 제4호

한지원, 배원식, 이건철, 성지호, 윤지영, 정호연, 이재민, 임지훈. (2022). 반려동물 유·무와 종류에 따른 20대 성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22, 10(1), 137~147

함태성. (2019).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법과 사회* 60호(2019년 4월), pp. 317-364

홍재원, 문재영, 엄승섭. (2015).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 힐링, 양육충성도의 관계 연구. *의료경영학연구* 제9권 제1호(2015년 3월 31일)

황원경, 김남경, 강윤정. (2025a). [요약본] 2025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와 비만 관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황원경, 김남경, 강윤정. (2025b). 2025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반려동물 건강 웰니스와 비만 관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황원경, 송광표. (2021).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반려가구 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動物愛護と動物福祉は別物だよ. <https://doubutuhukusi.com/animal-welfare-difference/>

Guo Bin. (2023). 한국과 중국의 동물법 비교연구 : 반려동물·실험동물·농장 동물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23년 2월

<https://doglaw.co.uk/dangerous-dogs/section-1-4b-dangerous-dogs-act-1991/>에서 '22.3.19 인출

Janssens, M., Eshuis, J., Peeters, S., Lataster, J., Reijnders, J., Enders-Slegers, M.-J., & Jacobs, N. (2020). The pet-effect in daily life: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n emotional wellbeing in pet owners. *Anthrozoös*, 33(4), pp.579-588
midogguide.com

<https://midogguide.com/ko/maintenance-and-care/how-much-is-dog-insurance-in-germany.html?nowprocket=1>

Smith, B. (2012). The 'pet effect': Health related aspects of companion animal ownership. *Australian family physician*, 41(6), pp.439-442.

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1993). Second report on prior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farm animal welfare.

72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WOAH. (2016).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Chapter 7.1. Introduction to the recommendations for animal welfare, Article 7.1.1.



Abstract

A Review of social security interventions and Policy Directions for Companion Animal Care

Project head: Lim, Wan-Sub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owning companion animals is rapidly increasing, and social perceptions of companion animals are rapidly changing. This is expanding the impact of companion animals on both households and society. While pet ownership can positively impact the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of pet owners, as companion animals age, medical costs are expected to skyrocket, placing a heavier financial burden on vulnerable populations. To sustain and expand support policies 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for vulnerable pet owners, a more systematic and objective approach is needed.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et-owning households in terms of their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t ownership and the impact of pet spending on life satisfaction, and to examine the need for social security interventions. Furthermore, it aims to examine various related issues and propose policy directions.

Overall, spending on companion animals among vulnerable groups improves life satisfaction, suggesting the need for support. However, a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e impact of pet ownership on life satisfaction was generally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pet ownership did have a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some groups, for most groups, the effect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r negative. Therefore, support for pet ownership should be approached with extreme caution. Meanwhile, spending on companion animals was foun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among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This provides a basis for supporting pet spending for vulnerable groups. However, since this is the result of

a regression analysis (OLS) across various groups, more sophisticated causal approaches (experimental or quasi-experimental research methods) are needed to confirm these results.

Furthermore,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pet ownership, the introduction of a pet ownership tax requires objective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through quasi-experimental methods as well as social experiments (pilot projects). Furthermore,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pet ownership and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pet owners, standardization of pet medical costs and increased transparen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re essential. Finally, expanding pet-related survey statistics is essential. This is essential for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various social policy measures related to pet ownership. This requires securing and organizing a representative sample, as well as comprehensively assessing the type and age of companion animals (at least dogs and cats), and the income and expenditures of households that own companion animals.

Key words: companion animal, animal welfare, social security, life satisfaction, property tax